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진관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그림일기로 표현된 일상의 이미지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장유진

# 그림일기로 표현된 일상의 이미지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진관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장 유 진

# 인 준 서

장유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본인의 작품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일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이미지 공간을 발견함으로써 시작된다. 예술이란 작가의 자기표현이며, 그 작가의 자화상이 된다. 작가의 내면이 반영된 작품이 감상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 그 작품에 진정한 의미가 주어진다.

예술가는 자신이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 감정을 이입하고 자신만의 갖고 있는 느낌과 생각으로 개성 있는 표현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표현은 일상 안으로 들어가 현실과 만나 새로운 창작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일상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습득하며 형성된 이미지와 형상, 감정 등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며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의식 속에 저장한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일상은 각자의 독특한 삶의 기록이며, 개개인의 예술이 된다.

본인 작품의 출발은 일상에서의 여러 경험 중 추억이 담긴 특별한 장소와 기억에 집중하여 그 안에서의 경험과 느낌을 지극히 사적인 표출로 나타냄으로써 시작된다. 본인의 개인적이고 소소한 이야기들이 모여 그 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림일기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며, 숨겨진 자아를 일깨워 새로운 ‘나’를 찾고자 하는 노력에서 의미가 있다. 예술은 단순히 지적인 놀음이 아니며 시지각(視知覺)에 의해 감지된 가장 강력한 것이 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예술관을 근거로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일상 속에서의 삶에 대한 사고를 부여하고 작품에 표현되는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매체와의 접목을 통한 재현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

작업과정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일상 속 에서 무의미하게 지나칠 수 있는 현상과 느낌에 회화적 감수성을 더해 서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작품 전개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도를 통해 이미지의 상징화 과정을 서술하였다.

작품 안에 등장하는 본인의 모습을 한 강아지의 은유적 표현 방법에 대한 연구 과정을 기술하였으며,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표현을 위하여 보편적 경험을 전제로 이야기 하였다. 현대미술의 흐름 속 에서 본인 작품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연구이며, 더 발전된 작품 활동을 위한 방향 모색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목 차

## 논문 개요

|                              |    |
|------------------------------|----|
| I. 서론 .....                  | 1  |
| II. 본론                       |    |
| 1. 작품 형성의 배경 .....           | 3  |
| 1). 일상의 기억을 통한 재해석 .....     | 3  |
| 2). 기록, 서술적 표현으로서의 이미지 ..... | 6  |
| 2. 작품 표현 방법 .....            | 11 |
| 1). 이미지의 상징화와 은유적 표현 .....   | 11 |
| 2). 유희적 감성과 여백표현 .....       | 18 |
| 3. 작품설명 .....                | 22 |
| III. 결론 .....                | 41 |

## 참 고 도 판

## 참 고 문 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  |    |
|---------|--|----|
| 【작품 1】  | 개거품, 34x45cm, 장지에 채색, 2014 .....             | 22 |
| 【작품 2】  | why so serious, 97x137cm, 장지에 채색, 2014 ..... | 24 |
| 【작품 3】  | 분양-파라다이스1, 91x137cm, 장지에 채색, 2013 .....      | 26 |
| 【작품 4】  | 분양-파라다이스2, 91x137cm, 장지에 채색, 2013 .....      | 27 |
| 【작품 5】  | 클로세움2013, 97x130cm, 장지에 채색, 2013 .....       | 30 |
| 【작품 6】  | One day1-1, 93x61cm, 장지에 채색, 2013 .....      | 32 |
| 【작품 7】  | One day1-2, 93x61cm, 장지에 채색, 2013 .....      | 32 |
| 【작품 8】  | 칭따오, 97x130cm, 장지에 채색, 2013 .....            | 34 |
| 【작품 9】  | 개빨, 97x130cm, 장지에 채색, 2012 .....             | 36 |
| 【작품 10】 | 가지고 놀다-에펠탑, 22x27cm, 장지에 채색, 2012 .....      | 38 |
| 【작품 11】 | 가지고 놀다-풍피두, 22x27cm, 장지에 채색, 2012 .....      | 38 |
| 【작품 12】 | 가지고 놀다-노트르담, 18x25.5cm, 장지에 채색, 2012 .....   | 38 |

## 참 고 도 판 목 록

|   |    |
|---|----|
| 【도판1】 온 카와라(On Kawara) - I GOT UP .....                             | 7  |
| 【도판2】 낸 골드인 (Nan Goldin) - Pawel laughing on the beach, Positano .. | 9  |
| 【도판3】 루이스 웨인(Louis Wain) - 그림속삽화들 .....                             | 14 |
| 【도판4】 남리 김두량(金斗樑) - 흑구도 .....                                       | 15 |
| 【도판5】 남리 김두량(金斗樑) - 삼살개 .....                                       | 16 |

## I. 서 론

예술작품은 단순히 재현만이 목적이 아니라 창작자의 사상과 철학, 인생관이 담긴 작품으로 승화되는 것이며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예술 세계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바움가르텐은 ‘예술작품은 완전성의 감성적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예술은 사물의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언어를 통해 확실하고 진실한 것 등의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예술이란 일상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일상을 통한 경험으로서 만들어지기에 그 바탕은 일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일상에는 예술가들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경험과 기억의 이미지들 등은 예술가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드러내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가 된다. 기억 되어진 수많은 이미지와 경험은 본인의 상상과 더해져 하나의 이야기로써 표현된다. 자신의 내면세계를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감정을 구체화 하며 사물의 현상을 표현하는 것 만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언어를 통해 확실하고 진실한 것 등의 이미지를 표현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곧 내적인 것에 대한 탐구이며, 자신의 내면세계를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그 감정을 구체화한다. 본인은 이런 ‘나’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소한 작품의 내용 과 형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일상의 사유와 재해석으로서 기록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을 파악하고 연상되는 이미지들을 미적 대상으로 삼아 어떻게 감성적 조형예술에 접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였다.

기억을 재구성 하여 기록한 그림일기 형식으로서의 이미지 전달방법을 서술할 것이며, 표현방법 으로서 본인의 모습을 대신해주는 강아지의 의인화를 통한 상징화 와 표현의 주제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특성의 유희적 표출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인 시선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품 속 여백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으며 소통을 통해 조형적 표현 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 하는데 의의가 있다.

## II. 본 론

### 1. 작품형성 배경

#### 1) 일상의 기억을 통한 재해석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상은 지속적인 삶의 조건을 제공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며,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갖게 해준다. 일상성(quotidien)에 대한 ‘롤랑바르트(Roland GerardBarther, 1915~1980)’<sup>1)</sup>의 견해를 보면 예술작품에서 다뤄지는 일상의 의미에 대해 그것이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한 것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얘기한다. 일상은 하루하루의 날씨의 변화만큼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이 변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된 생명력을 지니는 존재이다. 따라서 어떤 것도 일상의 바탕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일상의 의미심장한 경험과정을 예술로 정의하고 있는 듀이는 인간과 세계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지성의 실천을 예술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sup>2)</sup>는 예술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이야기 하며, 경험을 인간과 세계의 ‘만남(encounter)’으로 정의하고 경험은 ‘일상(ordinary lives)으로도 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경험에서

---

1) 롤랑바르트(Roland GerardBarther, 1915~1980)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는 1940년 파리 대학 교수로 취임했고, 1953년에는 프랑스 국립과학센터에서 어휘학과 기호론을 연구했다.

2)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 미네소타·미시간·시카고·컬럼비아 각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대표적 저서로는《논리학-탐구의 이론》, 《경험으로서의 예술》 등이 있다.

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다.<sup>3)</sup>

따라서 예술은 인간의 일상적 체험에 의한 내면세계의 표현을 추구하여야 하고, 그 출발점을 일상적 경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작품은 작가의 일상적 경험의 총체적인 표상이 되고 내면세계의 표출로 이어지게 된다. 듀이는 예술이란 것이 개개인의 일상의 행보와 직결되어 있다고 한다.

문학을 비롯한 미술 등의 예술작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소한 일상에 대한 세밀한 묘사는 결국 구체적인 즐거움이 창출되는 공간이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살아남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닌 바로 이런 개별적인 사람들에게서 우리나라의 세부적인 것, 삶의 일상적인 양상인 것이다.<sup>4)</sup>

예술가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식을 시각화 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다. 따라서 예술에서의 우리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많은 생각과 활동을 하면서 얻어진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감정과 정서를 형성해 나간다.

예술에서의 일상은 삶을 무미건조 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여유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며,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본인 또한 예술과 일상은 우리의 삶 안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상은 예술가들이 다뤄야 할 하나의 부분이라는 생각을 한다. 예술가들도 자기만의 문화, 환경 속에서 형성된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기억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 그들만의 방식대로 표현하며 자신만의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의 느낌·인상은 매우 일시적이며 사라지는 것이고 우연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인상들이 기억이란 이름으로 보관되어 진다.

일상의 기억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새로워진 기억술 ‘기억’과 ‘상상력’으로 상호작용 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과 상상력이란 기억의 매개체로

---

3) 존듀이, 윤형재(역), 『예술론』, 샤론, 1986, p.13

4) 롤랑바르트, 김희영(역), 『텍스트의 즐거움』, 서울:동문선, 1997, p.101

기억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나 물체의 형태에 심리적 중요성을 부여하며 상징적으로 변형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 기억하고 있는 중간 매개체(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상상력을 불러 내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sup>5)</sup>

화면 속의 그곳은 일상 모습이지만 여러 이야기나 이미지·기억들이 함께 공존하는 복합적이고 심리적인 화면이고, 또 상징과 상상의 세계가 된다. 우리가 그림에서 얻는 상상적 경험은 단순히 그 그림이 환기시킬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험이다. 본인도 일상 속 문화, 환경 속에서 형성된 기억들을 재해석하여 화면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억을 통해 이미지를 상상하고 표현함으로써 본인만의 예술세계를 재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가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의 모습들을 의미와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자신만의 개성으로 대상을 풀어낸다. 아무것도 아닌 대상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경험하는 모든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며 다양한 이야기나 기억이 함께 공존하는 복합적·주관적 이미지들을 화면으로 옮겨낸다. 현재의 장소와 혹은 사물 등 여러 가지 모습과 기억, 감정들이 남아있는 옛 추억과 장소들이 섞여 새롭게 형상화 되기도 하고, 상상을 통해 특정된 모습으로 변형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본인의 시각에서 쉽게 풀이하고 있다.

모든 이미지는 삶의 체험과 심상세계에 의하여 변화되고 추상화된 결과로서의 상징이다. ‘알베르토 망구엘(Alberto Manguel, 1948~)’의 나의 그림일기를 보면 자연과 우연이 일상 언어, 다양한 소리, 휘갈긴 글자를 바탕으로 만든 인위적인 언어로 해석될 수 있다면 해석된 자연과 우연은 ‘말과 이미지의 세계’라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다시 그것을 통해 현실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라고 하였다.<sup>6)</sup>

---

5) Aleida Assmann, 변학수(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1973, p.288

6) 알베르토 망구엘 강미경(역), 『알베르토 망구엘의 나의 그림일기』, 세종서적, 2004, p.18

현대의 예술은 기존의 권위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대중과 소통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본인작업 또한 현실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이미지들을 작품의 소재로 삼으며 작품에 나타나는 친근하고 익숙한 대상을 통해 일상의 다양한 모습을 주관적인 견해로 새롭게 재해석 하여 관람자와 쉽게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 2) 기록, 서술적 표현으로서의 이미지

예술가들은 개인적인 삶의 기억과 감정적의 느낌을 이미지화 하여 화면 안에 옮기며, 경험한 일상의 기억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상징화를 거쳐 의미 있는 방식을 통해 시각화 한다. 기록(記錄)은 일상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 할 수는 표현의 수단이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대해 그 정보와 지식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현재에 되살려 필요한 작업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 기록은 행위와 활동 그리고 기능을 반영한다.

폴 발레리(Paul Valery, 1871~1945)<sup>7)</sup>는 ‘미학은 어느 날 철학자의 발견과 욕망에서 출발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유이스망(JorisKarlHuysmans,1848~1907),<sup>8)</sup>의 해설대로 미학은 첫째로 감성적인 측면이고, 둘째는 ‘예술에 대한 철학적 반성의 전체’임을 뜻한다.<sup>9)</sup>

7) 폴 발레리(Paul Valery, 1871~1945)-20세기 전반 프랑스의 시인·비평가·사상가. 말라르메의 전통을 확립하고 재건, 상징시의 정점을 이뤘다.

8) 유이스망(JorisKarlHuysmans,1848~1907) 프랑스의 작가·미술 평론가. 자연주의 작가로 데뷔하고 소시민 생활의 평범하고 추악한 단면을 그렸으나, 이어 이 세계에서 탈피하여 퇴폐적·유미적(唯美的) 경향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네이버지식백과

9) 조요한, 『예술철학』, 미술문화, 1994, p.22

기록의 의미를 지닌 사진이나 일기, 드로잉 등은 순간의 감성과 감정이 묻어난 흔적이 되고 감정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의 수단이 되며, 일상생활의 순간을 그리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방식의 표현을 취하고 있다. ‘기억’이라는 과정을 통해 사라진 인간의 행위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즉, 기록은 기억을 담는 그릇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기억이다.

일본 출신의 개념미술 작가인 온 카와라(On Kawara, 1933~)<sup>10)</sup>는 시간과



(도판) 온 카와라(On Kawara) - I GOT UP, 1968-1979

존재에 관한 표현을 한다. 1965년 이래 뉴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때부터 의식과 시간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작업을 수행해왔다.

10) 온 카와라(On Kawara, 1933~) 일본 출신의 개념주의 미술가. 1965년 이래 뉴욕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시간 앞에 유한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와 그러한 작가 자신이 현재 서 있는 시간을 섬 없이 기록하는 과정의 예술이다. 두산백과

그의 작업은 시간 앞에 유한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와 그러한 작가 자신이 현재 서 있는 시간을 쉽 없이 기록하는 과정의 예술이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죽음과 더불어 완성될 연속된 작업으로 생각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도판1)은 1968년 5월 10일 79년 9월 17일부터 약 12년간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난 시각을 기록한 엽서를 우체국에 가 지인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고, 그리고 이 모든 엽서를 모아 1년에 한권으로 총 12권으로 구성된 『I GOT UP』을 완성하였다. 작업은 기록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일상성의 반복 그리고 연속성은 온 카와라(On Kawara)을 지칭하는 근본이다.

예술에서 존재하는 일상은 또 하나의 창작이다. 어떤 일상적 경험이 본인의 특유한 감성의 의해 특유한 자신만의 체험으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며 때로는 일상적인 경험이 본인의 감성을 자극하기도 한다. 그러한 경험이 의식과 무의식속에 자리 잡으며 창작과정 중에 사고의 선택에 의해 다시 감성적으로 재창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가에게 있어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은 신선한 자극이 되어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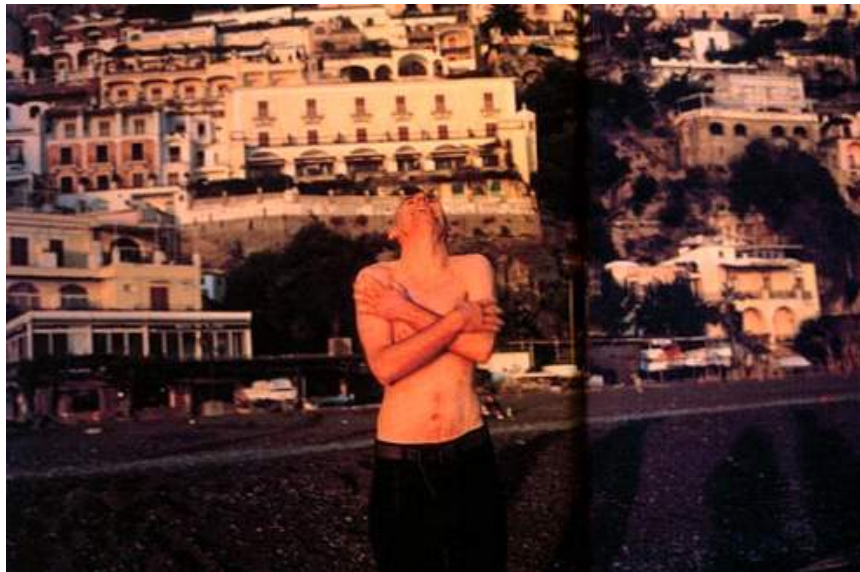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행은 예술가뿐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가장 크고 즉각적으로 일상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중 여행은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는 데서 시작하여 낯선 세계로 들어서고, 다시 익숙한 세계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다.<sup>11)</sup>

구체적인 기록 행위를 하는 미국의 사진작가 낸 골드인(Nan Goldin,1953~)<sup>12)</sup> 또한 매일 일기를 쓰듯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11) 서울대학교 박물관 특별기획전 도록, 『화가와 여행 Artists on Journey』, 2004, p.69

12) 낸 골드인(Nan Goldin, 1953~) 1953년 미국 워싱턴에서 태어나 보스턴에서 성장하였다. 미국의 사진가. 극단적인 인간상을 등장인물로 하여 1980년대 언더문화의 상징적 존재들을 사진에 담아 시대를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대표작으로 《The Other Side 1972~74》, 《A Double Life》등이 있다. 네이버지식백과

기록하였는데 일기형식을 취하는 사진들은 단순한 기록의 차원이 아니라 자서전적 성격을 가지며, 심화된 내적 고백의 공간이 된다. 자신과 관계가 있는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사람들을 사진의 소재로 삼아 이들의 성과 사랑, 가족관계를 솔직하고 과감하게 보여주었는데, 극적인 상황이나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일기장을 펼쳐 보이듯이 촬영한 것이 특징이다. 그녀의 사진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시대를 증언하는 뛰어난 기록이자 한 개인의 증거이며 시각적인 일기이다.



(도판2) 낸골딘(NanGoldin) - Pawel laughing on the beach, Positano, 1996

그녀의 작품 중(도판2) 1998년에 펴낸 『Ten Years After: Naples 1986-1996』<sup>13)</sup>에 수록되어 있는데 나폴리에 여행을 가서 만난 친구 포웰이

13) 낸 골딘의 사진집. 1986년, 낸 골딘과 함께 여행을 떠난 쿠키는 나폴리에서 훗날 남편이 될 비토리오 스카파티를 만났다. 『Ten Years After』의 첫 부분은 이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로 구

겨울바다에서 막 나와 자기 몸을 감싸며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을 사진기로 담은 것이다.

넌 골딘은 설명이나 판결을 하는 해설자가 아니라, 자기 주위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이다. 그리하여 어떤 주어진 이미지의 특징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 일반성을 구축해내는 것이다. 스스로의 방식대로 사는 우리 모두는 넌 골딘의 얘기를 이루는 한 부분들이다.<sup>14)</sup>

이런 일상의 사진일기는 비록 그것을 표현하는 매체는 사진이지만 회화로써 본인이 분출하고 싶은 자기표현과 닮아있다. 본인 또한 일상의 순간들을 재조명 해 보고, 직접 체험한 여러 경험들 중 여행을 하면서 가지게 된 에피소드, 찰나의 표현, 감정의 변화 등에 주목하여 기억들을 재편집해 재구성한 이야기들로 서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림에 나타나는 서술성(敘述性)엔 ‘무엇이 그려졌는가’에 집중하지만 본인의 작품에서는 이야기를 형상화하거나 형식자체를 시각화 하고자 한 또 다른 서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회화에서 서술(敘述)은 이야기 전달 행위 일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한 주체가 경험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재구축하기 위해 수행 하는 의미화 활동으로 볼 수 있다.<sup>15)</sup>

본인 또한 일상의 경험 중 여행기록 이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며, 삶의 기억을 위한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기록가치를 갖게 하는 대상을 발견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두고 있다. 여행을 통해 얻어지는 주관적인 경험들과

---

성됐다. 그런데 1989년 비토리오에 에이즈로 사망하고, 그의 동생 쿠키와 친구 다니엘 역시 같은 운명이 됐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넌 골딘은 다시 나폴리를 찾아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겨울 바다에 뛰어든 포월도 그때 새로 사귄 친구다. 넌 골딘은 막 바다에서 나와 자기 몸을 감싸며 웃음을 터뜨리는 포월을 사진기에 담았다. 그녀는 이 10년 전에 찍은 사진들과 10년 뒤에 찍은 사진들을 모아『Ten Years After』라는 제목을 붙이고 출판한 뒤, 이 책을 쿠키, 비토리오, 다니엘 이 세 사람에게 바쳤다.

14) 귀도 코스타, 김우룡(역), 『넌 골딘』, 서울:열화당, 2003, p15

15) 이문주, 『회화에 있어서 서술적 형상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익숙하지 않은 곳의 낯선 일상들은 본인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그 안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새로운 풍경들과 상상은 본인의 상징적인 표현의 주체가 되며 그 순간의 감성을 기억하고자 하는 도구가 된다. 본인에게 있어 여행은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으며 발로 직접 뛰며 겪는 생생한 경험들을 고백적인 성격의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림일기 형식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기록형태의 텍스트들과 이미지들은 감정이입과 함께 개인적인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감성이 묻어나는 작품을 표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기록을 통해 기억하고 싶은 행동이나 말을 보존하기 위해 문자와 내용으로 이루어진 조형적 텍스트의 도움을 얻은 형태는 기억의 세계에서 연장되고 퍼져가는 감정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본인 작품은 삽화의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에서 은유적(恩宥的)으로 형상이 읽혀지기 보다는 설명적으로 이미지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전하고 하고자 한다. 작업에서 글은 그림을 보조해 주는 역할로 이해를 쉽게 하고, 감정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표현된다.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일상의 소재들과 기억의 표현은 화면을 일기장 삼아 본인의 하루하루와 기억을 재편집한 조형을 통해 이야기를 형상화 하여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여행을 통한 기록의 구현은 감성적 이미지의 표현 뿐 아니라 내면적 이미지 표현특성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 2. 작품표현 방법

### 1) 이미지의 상징화와 은유적 표현

‘나와 닮은 듯 하 면서도 다르고, 다른 듯 하 면서도 닮은 강아지에 대한 매력에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강아지는 항상 그림의 소재가 되었다.’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이미지는 13년 동안 키우고 있는 강아지 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서로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본인의 체험과 그에 따라 느꼈던 여러 감정들은 보는 이의 공감을 어느 정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안 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대중화되고 일반화된 현상이고, 이런 친숙한 동물을 통해 작품 속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이런 강아지와 같은 반려동물은 소유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이런 강아지의 모습에 작품 속 에서 본인이 느낀 일상의 기억과 감정을 이입시켰으며, 경험과 사유의 단상을 새로운 캐릭터로 변환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하였다. 이는 간접화법으로 본인의 그린 자화상이다.

미술에서 다루어지는 동물이미지는 인간의 상상력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생산 되어왔다. 실제의 동물에다 상상력을 첨가하거나 여러 동물의 부분을 떼어서 하나의 새로운 동물을 합성하기도 하며 순전히 상상력에 의해 창조되기도 하였다.<sup>16)</sup>

동물의 형상은 사람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그림 속에서 조금씩 달라졌는데 형상이 과장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는 등 의도와 목적대로 변했다.

(작품1) <개거품>, (작품6) <one-day.1-1>에서 본인의 상상력으로 강아지의 모습을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어 나의 모습을 대변하고자 하였으며 이런 의인화(擬人化)는 때론 형상이 과장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며 인간의 형상과 결합되기도 하면서 새로운 존재를 창조해낸다. 이미지를 재현하는데

---

16) 장소연, 『동물의 미술』, 열화당, 1979. p.27

있어 은유적 요소의 상징중의 하나로 의인화(擬人化)된 연출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연출은 작품 속에서 현실과 상상을 연결하는 이미지의 환기에 목적을 두었다. 이런 이미지 은유의 도입으로 인한 심리적 표현을 주된 관점을 삼아 작품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며 상징적으로 표현된 동물 이미지로 본인의 내면세계와 자아를 반영하였다. 본인의 개인적 자아 형성을 도와주는 정신적 개념과 조형적 개념은 현실 속에서 억제된 욕구를 상상의 세계를 통해 심상적(心像的) 표현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였다. 예술의 출발점을 현실이라 했을 때, 상징은 그 현실의 동기로서 자연, 그리고 인간의 내면세계를 중첩적으로 표현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회화에서 상징은 상상력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예술가에게 있어서 상징화의 의미는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개념이다.

예술가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어떠한 것을 새롭게 창조하고 표현하는데, 영국화가 루이스 웨인(Louis Wain, 1860~1939)<sup>17)</sup>는 영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고양이를 그리는 화가’이다. 고양이를 의인화 시켜 눈을 크게 그리는가 하면, 종종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활동을 하며 사람처럼 여가를 보내는 모습으로 묘사하여 그리기도 하였다.<sup>18)</sup>

이런 감정이입(感情移入)은 단순히 그림 속의 주된 모티브만을 시각적 대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양한 인간의 모습과 본질적인 감정의 표현을 융화시켜 그것을 상징화 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적절하게 사용된 은유는 친근한 것들과 생소한 것들을 결합시킴으로서 매력과 특이성을 명료함에 더해 준다. 본인 작품에 등장하는 특정 강아지는 본인이 키우는

17) 루이스 웨인(Louis Wain, 1860~1939). 1860년 8월 5일 영국 동부의 클라켄웰 에서 1남 6녀 중 맏아들로 출생. 유방암에 걸린 부인에게 키우던 고양이 피터의 그림을 그려주며 간호하던 중, 부인의 권유로 재미있게 의인화한 고양이 그림들을 신문과 출판사에 보내면서 유명세를 얻은 화가. 그가 초기에 그린 고양이 그림은 고양이의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정신분열증을 경험하면서 점차 고양이의 형태가 추상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두산백과

18) 레슬리 오마라, 강미경, 『고양이카페- 고양이에 관한 비밀스럽고 놀라운 진실』, 보누스, 2009, p.100



(도판3) 루이스 웨인(Louis Wain) - 여러 삽화들, 1860-1939

반려견 으로서 본 연구자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표현되며, 본인이 소통하고자 하는 방식이 된다.

조선후기의 화가 남리 김두량(金斗樑, 1696~1763)<sup>19)</sup>의 ‘흑구도’를 보면 검정 개 한 마리가 심한 가려움을 참지 못해서 땅바닥에 나뭇잎이 깔려 있는 채 다리로 몸을 긁고 있는 광경을 스냅사진 찍듯 포착하여 그렸다. 비록 말 못

19) 남리 김두량(金斗樑, 1696~1763).조선후기의 화가.화원으로 윤두서(尹斗緒)의 제자였으며, 도화서별제(圖畫署別提)를 지냈다. 전통적인 북종화법을 따르면서도 남종화풍과 서양 화법을 수용한 작품을 남겼다. 산수·인물·풍속·영모(翎毛) 등 여러 방면의 소재에 능숙하였고, 신장도(神將圖)도 잘 그렸다.

하는 짐승일지언정 개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 마음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다. 초상화로 치면 인물의 정신까지 그려낸 격이다. 또 눈동자에 농담과 명암까지 넣어서 가려운 곳을 긁을 때의 절묘한 표정과 심리를 날카롭게 잡아냈다.



(도판4) 남리 김두량(金斗樑) - 흑구도, 1696-1763

‘어이구, 시원하다’고 눈으로 말하는 듯하다. 이는 그가 개의 생태는 물론 그 마음까지 잘 아는 사람임을 드러낸다. 남리는 개도 초상화를 그리듯이 그렸다. 내면의 정신까지 표출하는 초상화의 전신 기법을 바탕으로 개의 심리까지 묘사하는 진경을 열었다.

남리의 또 다른 작품 ‘삼살개’에서도 활달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개의 표정을 실감나게 그려 귀를 대고 있으면 마치 킁킁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이 표현하였다.



(도판5) 남리 김두량(金斗樑) - 삼살개, 1743

예술가들은 특정 대상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의 주관을 반영하기도 하며 기억과 감정의 심리 상태에 따라 대상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상징적으로 표현된 동물 이미지 속에는 본인의 내면세계와 자아의 반영, 생각, 정서 등을 모두 함축한다.

특정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이야기를 만든 (작품2) <why so serious>, (작품3) <분양-파라다이스1.>, (작품4) <분양-파라다이스2>, (작품5) <콜로세움2013> 에서는 본인은 여행을 하며 기록하고 담아주었던 이미지의 형상들을 화면 안에 재배치하여 장소나 공간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데 작품 속에서 본인의 모습은 역시 강아지로 의인화 되어 표현된다. 또한 작품 속 공간은 본인이 꿈꾸고 바라는 이상공간· 이상향(理想鄉)· 유토피아

의 공간으로 설정된다. 작품 속에서 표현되는 이미지들은 본인 기억에 내포하고 있는 감수성과 순수한 감정에서 관찰된 사물의 이미지들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과 이야기가 합쳐져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공간 안에는 개인적으로 의미를 두고 있는 여러 상징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프랑스의 ‘에펠탑’, 영국의 ‘런던아이’, 로마의 ‘콜로세움’이 대표적이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명 여행지의 상징물들을 여행을 통하여 직접 보고 느낀 순간들의 강렬하고 개인적인 느낌을 기억하여 본인만의 유토피아(Utopia)로 재창조 한 것이다. (작품3),(작품4),(작품5)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며 유명 여행지의 상징물들의 모양과 색등을 자유로이 바꿔 본인만의 상상 속 공간에 재배치 하였다. 상상된 공간은 이야기의 구조에 따라 하나의 장면으로 탄생하고 그 장면에서의 공간은 또 다른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유토피아(Utopia)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며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없다”는 그리스어 형용사 ‘ou’와 ‘장소, 곳’을 의미하는 명사 ‘topos’를 조합하여 만들었으며, ‘현실 어느 곳에도 없으며 새롭게 발견 된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다.<sup>20)</sup>

본인은 이런 이상향(理想郷)·유토피아(Utopia)에 대한 갈망으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상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순수의 공간이자 기억 속 이미지들의 새로운 공간으로 연출함으로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품7) <one day.1-2>에서 일상의 소재와 개인의 기억에 중점을 두고 공간에 대한 기억을 다시 시각화 하는 과정으로서, 관람자들로 하여금 과거나 혹은 현재에 한번쯤 보고 느꼈을 수 있는 감성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본인만의 유토피아(Utopia)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에서 소개한 작품들 속의 유토피아(Utopia)와 공간구성표현이 다른데 이는 상상 속에만 있는 공간을

---

20)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푸른 숲, 2002, p.221-252

현실로 가져와 일상 안에서도 여유롭고 걱정 없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한 시도였다. 어린아이 같은 시각으로 순수하면서 소박하고, 티 묻지 않은 표현을 하려고 하였으며, 본인이 표현하는 그림은 개인적인 심상의 조형이며 서정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 2) 유희적 감성과 여백표현

바움가르텐(Alexander Gottlieb Baumgarten, 1714~1762)<sup>21)</sup>은 ‘예술작품은 완전성의 감성적 표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술은 사물의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언어를 통해 확실하고 진실한 것 등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라고 하였다. 그림일기는 단순하면서도 쉽고, 무언가 할 말을 찾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는 사고의 재현이고, 체험으로부터 얻어진 무수한 감정과 생각들을 쏟아내는 방식이다. 본인은 일상의 경험을 통해 채택되는 소재들을 가지고 나만의 주관적인 인식을 통하여 회화의 언어로 표현하며 즉흥적으로 이미지를 배치하고 형상을 그려놓고 지우고, 다시 덧칠하며, 그 위에 글을 적기도 한다. 이런 자유스럽고 유희적(遊藝的)표현은 영어로는 <play, fun, amusement>등으로 말하며 일반적으로 미학적 의미에서 유희는 play의 개념으로 본다.<sup>22)</sup>

그 의미를 살펴보면 ‘유희란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도 그것 자체로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활동의 총칭’이다. 유희의 요소로는 긴장과 쾌락과 재미가 있는데, 어떠한 분석이나 논리적인 해석을 거부하는 ‘재미fun’라는 요소가

---

21) 바움가르텐(Alexander Gottlieb Baumgarten, 1714~1762)-독일의 철학자, 미학자. 베를린에서 태어나 1735년 할레 대학 강사, 40년부터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 라이프니츠/볼프학파 중에서 최대의 철학자로 철학의 각 영역에 걸쳐 저작을 남겼다.

22) 다케우치 도미오, 안영길(역), 『미학·예술학 사전』, 미진 사, 1993, p.249

유희의 본질이다. 동양의 유희설 중 장자의 유희개념을 보면 정신의 자유해방으로 “그 무엇에도 의지하는 일 없고, 세간적인 가치에도 좌우되는 일이 없으며, 인간적인 명분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도 없다.”<sup>23)</sup>

예술작품에 있어 다양하게 사용되는 유희성은 표현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본인에게 있어 유희성은 조형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이상의 표현이 되며, 예술가에게 있어 관객과의 소통은 예술의 원천과 근원이 된다. 자유롭고 싶은 충동의 유희는 (작품 6) <one day.1-1>, (작품 8) <칭따오>에서 표현 되었는데 술에 취해 얼굴 붉어진 채 즐거운 상상을 하는 듯한 강아지의 익살스러운 표현은 보는 이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왼손으로 일부러 빼뜰빼뜰 써내려간 글씨에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정형화된 글자의 이미지를 재해석 하여 하나의 재미있는 요소를 마련하였다. (작품10) <가지고 놀다- 에펠탑>, (작품 11) <가지고 놀다- 풍피두>에서는 유희의 개념을 여행 속 이미지에서 찾고 이를 단순화하여 가지고 놀 수 있는 대상 만들었으며 유희가 가지고 있는 놀이(play)의 성격으로 그대로 화면에 옮겨 놀이의 장면으로 표현하고 관람자와 유희의 감정을 소통하려 하였다. 표현 되어진 상징물은 기존의 모습이 아닌 장난감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강아지의 배 와 어깨 위에서 가지고 노는 대상이 된다. 이처럼 예술에 유희를 접목 시킬 때 작품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며 더 많은 이야기가 생길 것이다.

또한 본인 작품에서는 공간과 여백(餘白)이 주는 의미가 큰데 이는 효과적인 내면의 표현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여백은 그 의도 여부에 따라 ‘자연적인 여백’ 과 ‘의도되어진 여백’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인 여백이란 관념이나 의식 없이 행위의 자연 발생적인 의미한다. 의도되어진 여백은 회화나 조형물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비어있는 부분을 예상하여 그것

---

23) 장자, 이석호, 『장자』, 삼성, 1986, p.190

을 의도적으로 남기고 행위가 가해진 부분과 동등한 의미를 부여한다.<sup>24)</sup>

동양화에서 공간에 대한 개념은 감정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자연의 무한한 의미로 충만 되어 있는 상상력과 심적 표현력을 확대시켜 주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sup>25)</sup>

동양회화의 여백은 서양회화작품에 표현되는 배경과는 달리 표현하고자 하는 소재에 대한 공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여백은 소재로 선택된 대상과 대상이 의미하는 주제를 더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본인은 여백을 통하여 화면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고, 내용을 풍부하게 하며, 생명력 있는 화면표현을 하려 하였으며, 비록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미지의 세계를 함축하려 하였다. 또한 작품 속 여백은 소재로 선택된 대상과 대상이 의미하는 주제를 더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하는 표현 방법으로 사용 되었다.

동양회화에서 유에 대한 무는 곧 여백을 뜻하며 여백이란 곧 음양의 표현을 뜻하고 음양은 요철의 형태를 뜻한다. 때문에 동양화의 공백이 없으면 회화로서의 성립이 불가능하고 음양의 철학이 없으면 동양화의 진의가 없어진다.<sup>26)</sup>

본인은 동양회화가 가진 여백에 대한 개념을 조화와 상징으로 생각하며 공간표현의 극대화를 위해 색채를 활용하였다.

(작품9) <개뿔>등에서 이런 표현들이 보여 지는데, 하나의 색으로 바탕을 두껍게 올려 여백을 만들기도 하였고 여러 색들을 겹겹이 쌓아 올리며 중첩된 이미지의 여백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주된 이미지 이외의 모든 표현 대상을 생략함으로써 작품의 함축적 의미를 확장시키려 했으며 이것이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여백의 의미이며 내적감성 표현방법으로 사용 되었다.

---

24) 백기수, 『미학서설』, 서울대 출판사, 1989, p.134.

25) 고봉석, 『동양화에 있어서 여백의 정신적 배경에 관한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6) 김종태, 『동양회화사상』, 일지사, 1984, p.16

### 3.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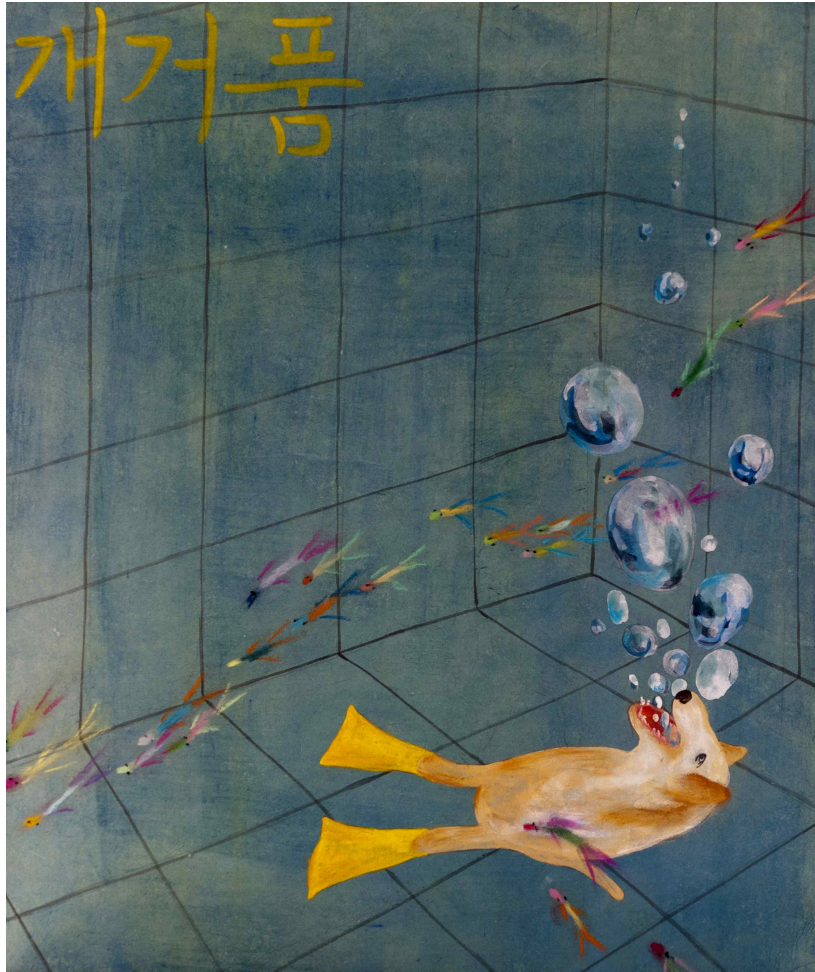
예술작품은 표현을 통해 드러나며, 이때 표현의 주체는 예술가이다.

일상 속 순간순간들의 기억과 감정 모든 에피소드들은 모두 작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일상 이라는 예술을 하며 살아간다. 본인은 일상의 경험과 여행 당시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감흥과 기억들을 재구성하였으며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이야기들이 표현된다. 본인의 모습으로 의인화 된 강아지 표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소품을 등장시키거나 특정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 강아지가 즉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 강아지가 판을 치고, 강아지에 의해 유지되는 세상은 강아지가 꿈꾸는 세상이며 동시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기도 하다. ’

- 본인 작가노트 중에서 -

이렇듯 작품 속에 표현되는 형식은 경험적 소재와 상상력을 뒤섞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이렇게 제작된 작품들은 현실과 상상이 조합된 공간을 형성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증가시켜 관람자의 공감을 얻고자 하였다.



[작품 1] 개거품. 장지에 채색. 34x45cm. 2014

[작품 1]

작품제목: 개거품.

작품크기: 34x45cm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년도: 2014

본인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체험한 감정들, 즉 자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였다. 강아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에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었다. ‘개거품’은 일종의 말장난과도 같은 언어수단에 강아지의 표현을 자유로이 하여 본인 마음대로 상황과 장소를 바꿔 재미있게 표현해 보았다. 본인의 작업에서 글로써 나타나는 언어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며, 개성적이고, 유희적 표현의 측면의 사실이 크다. 우연히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개거품 물고 쓰러지겠다.’는 표현을 들었는데,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작품에 가지고 와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 해보고 싶었다. 작품에서 사실적이고 예쁜 표현보다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러운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은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이나 아픔 등 생활 속의 어두운 측면이 아닌 웃음과 즐거움이 담긴 정서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익살스러움이 때로는 웃음이 나는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나의 부조리와 세상에 부조리함을 조롱하는 표현이 되기도 한다. 힘들고 짜증나서 거품을 물고 있는 모습이 아닌 예쁜 물속에서 편안히 즐기며 개거품을 물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하나의 작품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과 반응을 기대해본다.



[작품2] why so serious. 장지에 채색. 91x137cm. 2014

[작품 2]

작품제목: why so serious.

작품크기: 91x137cm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년도: 2014

화면 구성에 있어 단순한 배치로 심플하고, 함축적인 내용을 강조하였다. 객관적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주관적인 형상에 입각하여 생략과 과정을 섞어 본인만의 공간을 표현 하였다. 본인의 작품을 형성하는 주된 시간과 공간을 어떤 주제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만든 후 나름의 상상을 통해 정의를 내린다. ‘why so serious’ 는 여행을 하면서 담아 두었던 기억과 평상시에 꿈꾸던 유토피아의 모습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편안하고, 안락하며, 언제나 꽃들이 하늘거리는 시간이 멈춰진 공간이다. 이런 공간을 머릿속에 늘 상상하며 항상 담고 있었는데, 우연히 서커스가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된 후 서커스 하는 모습이 아닌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천막이라는 그 공간자체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작업을 진행시켰다. 서커스가 시작되기 전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가득한데, 시끄럽고 화려할 것만 같은 그 안에서 본인은 반대로 적막함과 편안함을 반대로 찾아보고자 하여 본인만의 조용한 유토피아를 상상해 본 것이다.

화면 안에서 언어와 이미지가 내포하는 내용이 다른 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어 자신들만의 시각과 감성으로 본인의 작품을 재해석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다.



[작품 3] 분양- 파라다이스1. 91x137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 4] 분양- 파라다이스2. 91x137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 3]

작품제목: 분양- 파라다이스1.

작품크기: 91x137cm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년도: 2013

[작품 4]

작품제목: 분양- 파라다이스2.

작품크기: 91x137cm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년도: 2013

[작품 3], [작품 4]은 2012년 본인이 유럽 여행하면서 느꼈던 순간들의 기록이다. 가장 보고 싶고, 가장 갖고 싶었던 파리 에펠탑, 영국 런던아이, 로마의 콜로세움 등을 본인만의 놀이터에 담아 놓은 것이다. 여행하면서 했던 드로잉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데, 그 때 기록해 두었던 본인의 생각과 감정 등을 함께 적어 작품에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다. 일상의 경험 중 특별한 기억에 본인의 상상력을 더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 낸 것이다.

상상된 공간은 이야기의 구조에 따라 하나의 장면으로 탄생하고 그 장면에서의 공간은 또 다른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상상과 생각의 의도는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의도 외에 보는 대상의 상상과 경험에 의해 의미가 재해석되고, 그 공간은 단순히 이미지를 보여주는 (showing) 공간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간이 되도록 설정 하였다. 즐겁고 신났던 그 때의 기록을 밝은 색채와 부드러운 질감을 이용해

재미있게 표현하고 싶었다. 또한 엽서와 같은 형식을 빌려 작품을 했는데 여행했을 당시의 행복함과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엽서라는 형식을 빌려 표현해 보았고, 작품 속에 ‘분양’이라는 텍스트 또한 같은 의미로 그 순간의 마음, 감정상태 등을 나누고 싶어 쓴 또 하나의 표현의 방법이다.



[작품 5] 콜로세움2013. 97x130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 5]

작품제목: 콜로세움2013.

작품크기: 97x130cm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년도: 2013

앞에 설명한 [작품 3], [작품 4]와 같이 [작품 5] 또한 본인이 여행 중에 겪었던 일들을 작품으로 옮겨놓은 것인데, 본인은 유독 로마의 콜로세움에 관심이 많았다. 큰 원형 경기장은 많은 이들이 함께 했던 희로애락(喜怒哀樂)이 공존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 곳 머무를 당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감정은 기쁨과 즐거움 이었던 것 같다. 콜로세움 앞에서 유독 많은 상상들이 겹쳐 본인을 즐겁게 하였는데, 그 상상 중 하나가 바로 콜로세움을 큰 수영장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 상상을 가지고 큰 원형 수영장 안에서 자유로이 수영도 하고, 즐기는 모습을 마음껏 표현 하였다. 처음 콜로세움을 보게 된 게 늦은 저녁이었는데 그때 사방에서 비추는 빛들이 너무 강렬하기도 하고 빛으로 인해 따뜻한 느낌을 받았기에 여백은 노랑색을 이용하여 색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작품 5] 역시 그림일기 혹은 엽서와 같은 형식으로 글과 이미지가 함께 쓰였는데, 그것은 나에게 쓰는 편지와도 같은 고백의 글귀들 이다. 급하지 않고 여유로웠던 유럽에서의 느낌을 담아 ‘나비야 청산가자’를 ‘똥개야 청산가자’로 바꾸어 빨리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여유를 찾아 풀잎에서도 이슬에서도 쉬어가자 라는 고백을 적어보았다.



[작품 6] One day1-1. 93x61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 7] One day1-2. 93x61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 6]

작품제목: One day1-1.

작품크기: 93x61cm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년도: 2013

[작품 7]

작품제목: One day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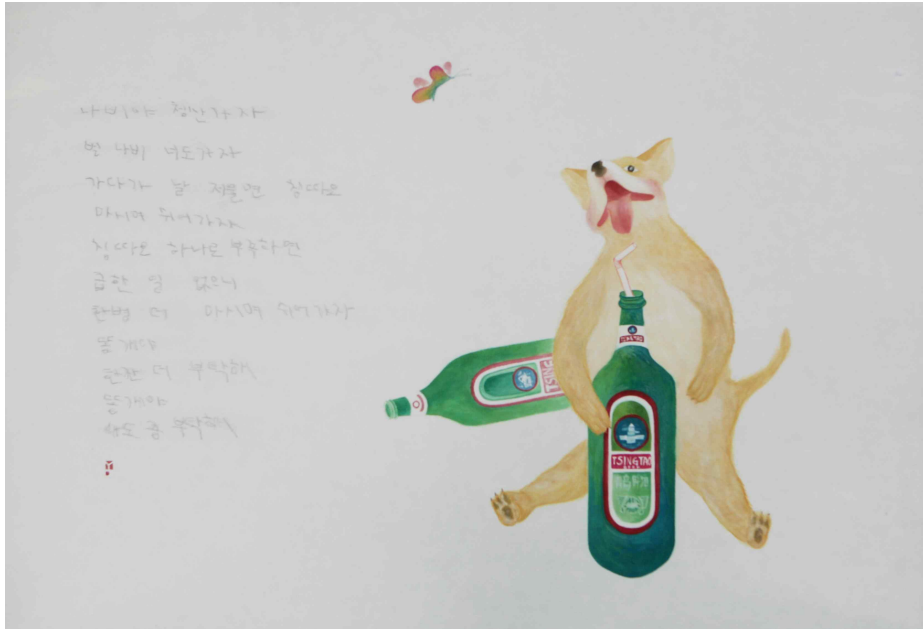
작품크기: 93x61cm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년도: 2013

[작품 6], [작품 7]은 변형된 화판을 이용하여 재미를 주고자 하였다. 기존에 사용하던 네모 혹은 동그란 화판이 아닌 집모양의 화판을 제작하여 작품 속에 글이 없더라도 화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야기가 만들어기를 바랐다. 두 작품 역시 본인의 고백적인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집’이라는 나에게 가장 큰 보금자리인 그 곳을 재미있는 모습으로 바꿔보았다.

매일매일 돌아오는 변함없이 지루한 집의 모습이 아니라 재미있는 상상들로 즐거운 집을 만들어 보고 싶었으며,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 즐기는 휴식과 여유가 아닌 내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늘 보며 편히 누워 휴식을 취해보며 즐기는 상상으로 제작하였다. 장지에 분채를 하고 그 위에 파스텔을 이용하여 마무리 하였는데 조금 더 세심한 표현을 위한 선택 이였다. 색의 표현도 분채를 이용했을 시 보다 한결 더 부드러워졌으며, 따뜻함이 잘 표현되었다.



[작품 8] 칭따오. 97x130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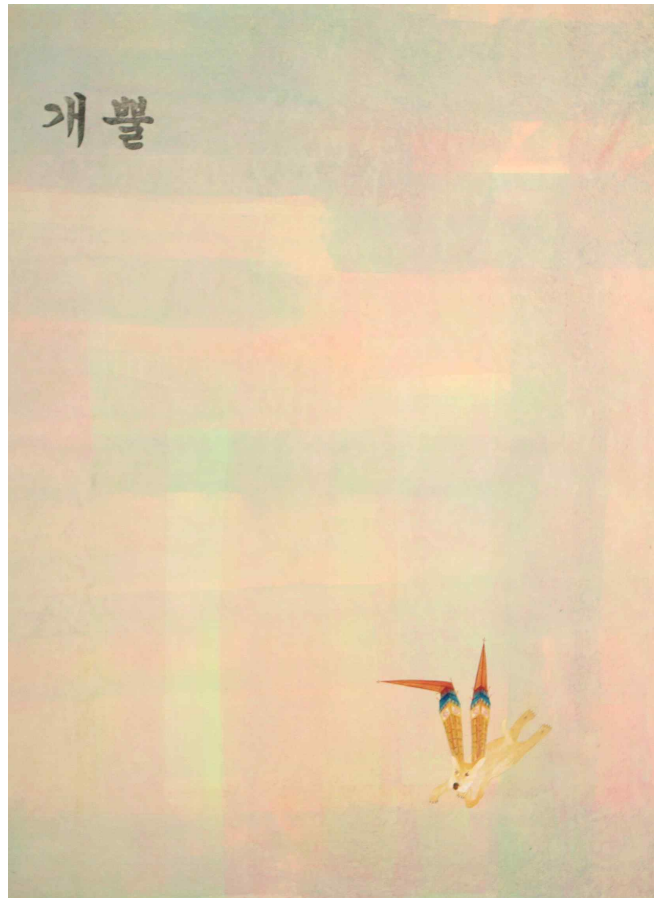
작품제목: 칭따오.

작품크기: 97x130cm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년도: 2013

[작품 8]은 중국 ‘칭따오’를 여행하면서 느꼈던 감정의 표현이다. 칭따오에 가면 이름을 딴 유명한 맥주가 있는데, 이곳의 맥주는 아주 청량하고 맛있기로 소문이 나있다. 술을 마시기 위해 여행을 갔던 것은 아니 었는데, 맥주 맛에 취해 하루종일 술만 마셨던 생각이 난다. 칭따오를 다 마셔버리면, 칭따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즐거운 발상을 하면서 드로잉 했던 기억이다. 술에 취해 붉게 물든 강아지 볼의 표현과 쉬어가자 라는 표현이 담긴 글귀도 함께 적어 심상적 표현을 해보았다. 여백이 주는 공간의 활용을 이용하였으며 청량하고 깨끗한 이미지 표현을 위해 다른 작품과는 달리 흰색배경을 연출 하였다. 것이다. 회화작품 속에서 여백은 본인의 작품의 근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대상이 된다.



[작품 9] 개뿔. 97x130cm. 장지에 채색. 2012

[작품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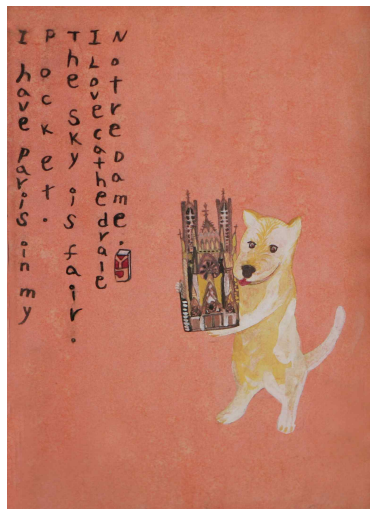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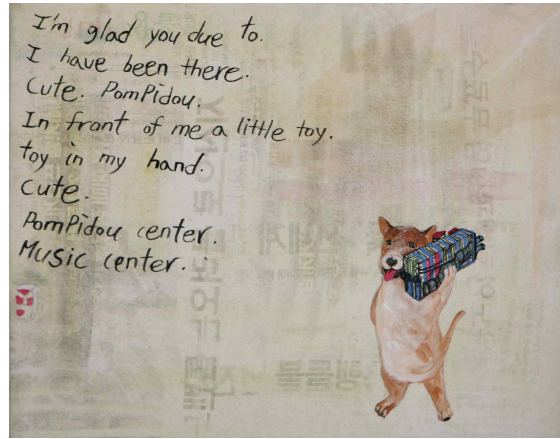
작품제목: 개뿔.

작품크기: 97x130cm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년도: 2012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흔히 내뱉는 단어 ‘개뿔’이라는 단어를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개뿔이라는 단어는 본인에게 많은 상상력을 갖게 해주는 단어였다. 작품을 하던 어느 순간부터 단어가 주는 재미에 빠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작품을 표현하는데 이용되어졌다. 영국여행을 하던 중 본 빅 벤(Big Ben)의 모습을 ‘뿔’로 형상화해 표현한 작품이다. 일상 속에서 개뿔이란 단어는 화가 나가거나, 욕 하는 감정이 들 때 하는 말인데, 작품 속에서는 그저 강아지에 달린 뿔로 바뀌어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빅 벤(Big Ben)은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궁전 북쪽 끝에 있는 시계탑에 딸린 큰 종(鐘)에 대한 별칭인데, 본인이 만드는 상상공간에 늘 등장하는 작품소재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상징을 강아지에게 가지고 웃음으로서 개성 있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 화면 속 여백은 여러 색으로 반복적인 붓질을 하여 공간을 만들었으며, 색의 중첩과 조화로 즐거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10] 가지고 놀다-에펠탑. 22x27cm. 장지에 채색. 2012

[작품 11] 가지고 놀다-퐁피두. 22x27cm. 장지에 채색. 2012

[작품 12] 가지고 놀다-노트르담. 18x25.5cm. 장지에 채색. 2012

[작품 10]

작품제목: 가지고 놀다-에펠탑.

작품크기: 22x27cm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년도: 2012

[작품 11]

작품제목: 가지고 놀다-퐁피두.

작품크기: 22x27cm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년도: 2012

[작품 12]

작품제목: 가지고 놀다-노트르담.

작품크기: 18x25.5cm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년도: 2012

[작품 11], [작품 12], [작품 13]은 본인의 작업 중 즐겁게 재미있는 표현을 한 작품인데, 가장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면서 그려온 작품 들이다. 에펠탑(Eiffel Tower)과 노트르담 성당(Cathedrale Notre-Dame)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채 1시간도 안 걸려 완성했던 기억이 난다.

그 순간의 기억과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평소 한국의 남산을

보면서도 ‘주사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에펠탑을 보면서도 크고 거대한 상징물이라는 생각이 아닌 그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재미있고 즐거운 마음상태 그대로를 표현하였다. [작품 11]는 퐁피두센터(Centre Pompidou)에 전시를 보러갔다가 프랑스 시민들과 여행자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도서관처럼 이용하는 모습과 센터 안에 피아노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전예약을 하면 시간을 정해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해 놓은 공간은 보고, ‘이곳은 정말 재미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여 강아지가 카세트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보았다.

[작품 12]은 노트르담 성당을 보고 그린 작품인데, [작품 10], [작품 11]는 달리 재미있고, 즐거운 표현이 아니라 성당에서 느꼈던 웅장함과 견고함 그리고 강렬함을 전하고 싶어 성당을 강아지가 두 손으로 받치고 있는 예의 있고, 바른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 Ⅲ. 결 론

본 논문은 기억과 이미지 재해석을 통해 가장 일상적이면서 개인적인 대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대상 자체의 재현이 아닌 새로운 이미지의 재해석으로 표현되었다. 작품 속에서 현실의 이미지들은 본래의 가지고 있던 의미가 아닌 본인의 표현적 의도와 결합해 새로운 의미로 재창조 되어졌다. 본 논문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소재의 은유로 비롯된 재현이나 서술적 기록으로서 형상화된 내용의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었으며, 일상의 이미지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것이었다. 이는 본인의 작품에서 소재로 한 일상의 이미지, 여행지, 특정 상징물 등을 재구성 하여 새로운 공간·유토피아(Utopia)을 창조하였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공간과 현실의 기억을 함께 작품에 표현하여 새로운 공간으로서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안에서 나타내어지는 본인의 모습으로 표현된 강아지와 여러 이미지들과 풍경들을 조합함으로써 상상력을 증폭시키려 하고, 풍성해진 상상력으로 일상이라는 소재에서 새롭고 신선한 재미를 찾고자 하였으며 시·공간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미지를 기억과 정서적 은유를 통해 표현하였다.

또한 작품에 내재된 감성적 사유체계의 회화적 공간을 동양회화에서 의미하는 여백과 관련시켜 설명하였다. 이는 여백을 활용한 공간표현이 본인 작품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려진 사물보다 더 많은 사물이 담겨진 공간으로 재창조 되는 것이며 여백을 통하여 표현된 작품 안에서 철학적의미를 찾아나갔다.

이상과 같이 본인의 내면세계를 그림과 글이라는 소재로 즉흥적이면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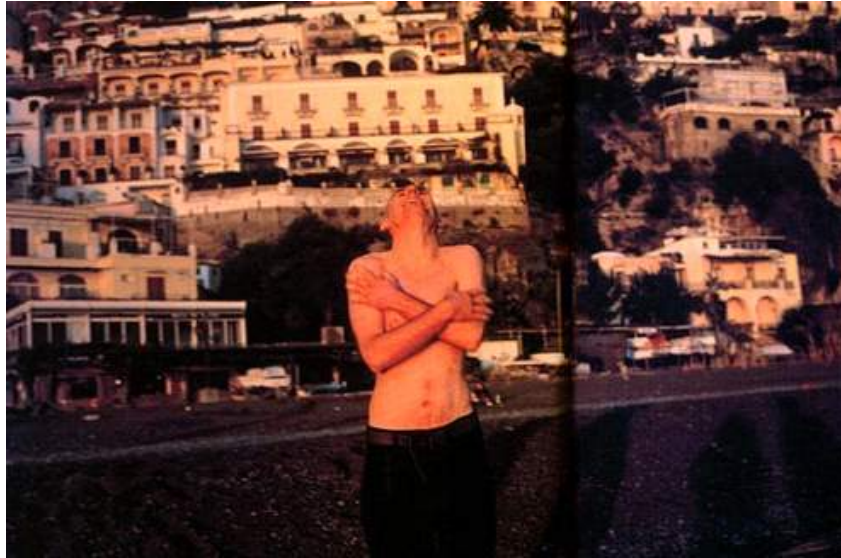
자유로운 구도로 유희적 표현을 하였고 일차적으로 스스로와 소통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작품을 보는 이들과도 소통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스스로가 만족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술은 일상적 삶 안에 집중된 표현이고 반영이듯이 본인 스스로 끊임 없이 작품에 집중하며 감정의 기록들을 계속 표현해 나아갈 것이다.

# 참 고 도 판



[도판1] 온 카와라(On Kawara) - I GOT UP , 1968-1979



[도판2] 낸 골딘 (Nan Goldin) - Pawel laughing on the beach, Positano ,  
1996



[도판3] 루이스 웨인(Louis Wain) - 여러 삽화들, 1860-1939



[도판4] 남리 김두량(金斗樑) - 흑구도, 1696-1763



[도판5] 남리 김두량(金斗樑) - 삼살개, 1743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다케우치 도미오, 안영길(역), 『미학·예술학 사전』, 미진사
- 레슬리 오마라, 강미경, 『고양이카페- 고양이에 관한 비밀스럽고 놀라운 진실』, 보누스, 2009
- 롤랑바르트, 김희영(역), 『텍스트의 즐거움』, 서울: 동문선, 1997
- 류수열 외, 『스토리텔링의 이해』, 서울: 글누림, 2007
- 서울대학교 박물관 특별기획전 도록 『화가와 여행 Artists on Journey』, 2004
- 알베르토 망구엘, 강미경(역), 『알베르토 망구엘의 나의 그림일기』, 세종서적, 2004
- 이수원외, 『심리학』, 서울:정민사
- 장소연, 『동물의 미술』, 열화당, 1979
- 장자, 이석호, 『장자, 삼성, 1986
-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푸른 숲, 2002
- 조요한, 『예술철학』, 미술문화, 1994
- 존듀이, 윤희재(역), 『예술론』, 샤론, 1986
- 토머스 모어, 주경철(역), 『유토피아』, 을유 문화사, 2007
- Aleida Assmann, 변학수(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197

### 학위논문

- 김정향, 『치유를 위한 해학적 이상공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송희, 『일상적사유의 기록을 통한 조형적 표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박정은, 『일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금속 조형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우윤정, 『반려동물과의 관계 속에 투영된 내적자아의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문주, 『회화에 있어서 서술적 형상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조장은, 『조장은 그림일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ABSTRACT

## A Study on Images of Daily Life Expressed in a Picture Diary

- Focused on My Work -

Jang ,Yoo-Jin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is to study on contents & forms of expression related to my works created from 2012 to 2014. My works begins to discover new images of space, reconstructing the things that are experienced and undergone in a daily life. An art is to be self-expression of an artist, and a self-portrait of the artist. When works reflecting the inner world of artists arouse sympathy from one who appreciate them, the works are given the true meanings.

Artists want to make a unique expression with their own feelings and thoughts, empathizing about what they see and feel. These expressions create new creations corresponding to reality by their stepping into the daily life. We experience and learn everything in our lives, have our presences due to formed images & shapes, emotions, etc, and preserve

phenomena occurring in life in our consciousness directly and indirectly. As we live in the present time, our daily lives naturally assimilated with our lives are to become records of each unique life and arts of individuals. My works start making a very private expression with experiences & feelings in a variety of the experiences focusing on specific spaces & memories cherished in the experiences in daily life. My personal & trifling stories are collected and expressed in a form of picture diary showing the stories at that time, and have a meaning in efforts of looking for new 'myself' by awakening a hidden self. Arts are not a simply intellectual play, but should be the strongest one perceived in a way of viewpoint & percep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seek my future direction of works based on my concept of arts, and to explore working processes focusing on expression of reproduction through combination symbolic media with formative features of images expressed in the works by giving thoughts to my life in daily life. I tried to express the phenomena & the feelings ignored meaninglessly in daily life with a picturesque sensitivity in a way of description, and described a process to symbolize images through attempts to support a theoretical consideration to development process of works.

The research process to express one puppy who looks like myself in the work in a metaphorical way was described, and the story was created subject to common experiences for expression of simple, natural images.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ocess not any result of my works in the context of the modern arts, and aims to seek a direction to create more developed works.